

사회복지시설 탐방 ④ - "목련의집"

치매노인들의 마지막 쉼터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치매노인들의 마지막 쉼터 목련의 집. (원인 양영화 회장)

"목련의 집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치매노인들의 마지막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목련의 집(원장 양영화·58)은 군내면 구읍리 413번지에 위치한 조건부 신고 시설이다. 현재 이 시설은 1인당 30~60만원정도의 비용을 받는 유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57세에서 88세까지의 8명의 치매노인과 1명의 무의탁노인 등 9명이 입소해 있다. 또 양영화 원장과 아들인 오승민(37)씨가 운영하고 있다.

양영화 원장이 1998년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의 병수발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5월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와 포천에 오게 됐다"며 "한두 명씩 늘어나는 노인들을 돌보며 세 살이 하는 동안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양 원장.

"친정어머니를 돌보며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아주는 자식들의 고통과 타 시설에서도 치매 노인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을 알기에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목련의 집의 운영은 환자들에게서 수급되는 요양비용만으로 충당된다.

양 원장은 "사실상 후원금이 없다"며 "유료로 노인을 받는다지만 경제적으로는 항상 부족하다"며 관심 있는 후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밝혔다.

목련의 집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신고시설로의 전환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보조금 등 일정규모의 지원금이 나오길 바란다.

"외양으로는 말쑥해 보이나 지병보수 등 집의 보수가 절실한 상태"며 "지난해 로또기금 등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이

있으나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포기했다"고 밝혔다.

목련의 집은 후원자들의 금전적인 후원은 거의 없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고맙다고 한다.

'목련회'와 포천의료원 간호사들의 봉사 모임인 '백합회'에서 주기적인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산리 포사회와 어정자씨, 박영자 씨 등이 꾸준히 찾아와 봉사를 하고 간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불 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이지만, 몇 년째 찾아와 노력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양 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노인 치매시설 봉사 활동시 주의할 몇 가지를 주지시켜줬다.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봉사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포천에는 아직도 봉사자교육시스템 활용이 미비한 것 같으며 봉사자 사전교육을 당부했다.

이어 해당시설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반드시 물어보길 바란다며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할 것, 개인적인 질문을 삼갈 것 등을 말했다.

일례로 노인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정도 목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양 원장은 "목련의 집은 앞으로 치매노인들을 가족처럼 모시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며 "국가와 포천시, 주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 : 농협 225047-52-191994(예금주 : 양영화)

문의 : 031-534-8554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비른 계산법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몇 달 전에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찾아온 여성이 있었다.

사연인즉 남편이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는 매일 술만 먹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다 성격마저 난폭해져 욕설과 폭행까지 한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연이 하도 딱해서 "어쩔 수 없다면 뜻대로 하셔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되물었다. "제일 좋은 방법이냐 남편이 바뀌는 것인데 그게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고 한다. "그럼 미련 갖지 말고 이혼을 하면 큰 얻이 되지는 않음 것입니다"고 말해 돌려보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부부가 함께 찾아와 나에게 큰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뻐하던 한도 미련도 남지 않도록 100일만 잘하자.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정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자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어쩌면 영문인지 이 사람이 직장도 구하고 지금은 잘해 주네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혼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함께 웃은 기억이 난다.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계산이 따른다.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주라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대부분 올바른 계산을 하지 못한다. 항시 나는 많이 준거 같은데 상대방은 내가 준만큼 주지 않는 것 같다. 억울하고 미운 마음이 든다. 말투가 고칠 틈이 없고 눈빛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상대 또한 억울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준 것은 잊어 버려야 한다. 상대방이 주던 안 주던 내 할 도리를 다 할 때 숙업(宿業)도 사라지는 법이다. 윈 손이 한 일을 오른 손이 돌려야 행복한 법이다.

031-542-0032

손님 1명당 100원씩 적립

고남석, 민영이 부부 本紙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남석, 민영이 부부는 지난 5일 본지에 불우이웃을 위해 새 달라져 6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포천신문의 투명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 행을 당부했다.

포천동에 24시 제일사우나를 경영하는 고남석(54), 민영이(51) 부부의 이웃사랑이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전해졌다.

지난 5일 고남석, 민영이 부부는 1달여 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은 60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새 달라져 기탁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고남석, 민영이 부부는 목욕숙넌 1명당 100원씩을 돼지저금통에 저금하기로 했고, 모인 돈을

은행에 매일매일 입금해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남석, 민영이 부부는 "신뢰 가는 단체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수 소문하던 중, 일동의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포천신문이 투명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믿고 맡기는 것이니 만큼 불우이웃에게 보람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써 한 달에 수십 만원씩 따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포천시민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 만큼 자리를 잡고 있으니 당연히 환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새해가 되면서 돼지저금통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고남석, 민영이 부부는 지속적으로 본지에 불우이웃성금을 기탁할 것을 약속하고 투명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을 당부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지역발전과 이장권익에 先導的 역할 다짐

(새경기북부리·통장협의회 포천에서 정기회의)



(새경기북부리·통장협의회가 지난 31일 포천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경석회장이 퇴임하는 가평군 김태은 협의회장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승인과 받게된 등록증이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중앙회비 조기납부에 대한 토의 ▶2005년도 예상수입과 예상지출에 대한 토의 ▶이·통장 퇴임시 감사패 증정 여부에 대한 논의 ▶정기회의 참석시 수당지급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타안건에서는 ▶주민 전·출입을 리·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리·통장 수장의 현실화(업무시 유류비등 지원) ▶해당 시·군에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요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경석 회장은 "퇴임하는 지역 이장연합회장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리·통장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새경기북부리·통장협의회)의 정기회의는 2달에 한번씩 각지 회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며 다음 정기회의는 3월 양주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5개의 리·통장협의회가 가입된 (새경기북부리·통장협의회)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이 가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이웃사랑 실천 교회가 앞장선다



이승철 목사
주사랑교회

회(일동면 유동리 70-2) 이승철 목사(사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장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 재학중에 화현면 주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이 목사의 손길에서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 토요일에는 학원이 문을 열지 않아 학생들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자 이 목사는 먼저 나서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책임지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들과도 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다.

이 목사는 "어렵고 힘든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물질적, 육체적 도움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목사는 이들을 물질적으로 도

우기 위해 교회 절기헌금의 전액을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마다 현재는 20~30만원의 헌금이 모아진다. 이 헌금을 출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비록 몇사람 밖에 지원이 안되지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전달해 주고 있다. 농촌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이 목사는 침술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위급할 경우 침술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함이다.

일동면과 화현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주사랑교회는 일동면과 화현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과 불우이웃들의 따뜻한 휴식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향군인회 여성회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포천시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박미옥)는 지난 달 29일과 30일 이 번 달 4일과 5일 송우리 택시점령 장 공터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마련했다.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선바자회는 포천시재향군인회여성회회원들이 단감 400kg과 밤을 광양 8만 산에서 직접 구매해 1박스에 5천원씩 적립해 불우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사)한여농포천시연합회 제6대 이복숙 회장 就任

"600여 여성농업경영인의 화합과 복지실현에 노력"

사단법인한국여성농업인포천시연합회(회장 이복숙)는 지난 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05년도 연시총회 및 제5대 이임식 및 제6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최대종포천시의회위원장, 황성택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장, 각 농협 조합장 및 회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2005년도 연시총회를 개최한 뒤 마련된 제5대 이임식 및 제6대 취임식은 5대 현역 회장 임원진에 대한 공로패와 표창패 전달과 정춘옥 수석부회장의 창립선언 낭독, 이은주 사업부회장의 강령 낭독, 이임사 및 취임사, 연합회기 전달, 각계 인사들의 격려사 등의 순

서로 진행됐다. 제4대와 제5대 회장을 역임한 현역 회장은 이임사에서 "앞으로도 농촌의 현안인 식량주권과 농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회장으로 있던 4년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회고의 눈물자였다.

이어 제6대 회장에 취임한 이복숙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600여 여성농업경영인과 700여 농업경영인의 부인들이 화합해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이 출범하게 된 제6대 (사)한여농포천시연합회는 이복숙 회장과 20여명의 임원진이 구성돼



(사)한여농포천시연합회가 지난 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대 이임식 및 제6대 취임식에서 이복숙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복숙 회장은 ▶1999년 한여농관인면 지회회원 가입 ▶2001년 한여농 관인면 지회 부회장 역임 ▶2003년 한여농 관인면 지회장 역임 ▶2003년 관인면 개발자문위원 (現)을 거쳐 (사)한여농포천시연합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하게 됐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고/향/생/각



부모님 전상서

조귀순 (포천시 가산면 출생, 수필가)

어려서 편지 쓸 일이 자주 있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언니에게 어머니는 막내인 나더러 답장편지를 쓰게 하였다.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어머니가 불러 주시는 대로 일변 패지에 받아 적었다.

'큰애 보거나 객지서 고생이 많구나. 여긴 큰집처럼 다들 무고하다. 조석은 잘 챙겨먹는지 궁금했는데 안심이다. 수필 내 한번 내내가라. 그거 모조록 품성하 살 있거라.' 소가 새끼를 낳았다던지 모내기를 한다던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쓸 때마다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했다.

특별한 아버지는 뒷목에 얹어 봉초담배를 꺼내 담뱃대에 넣으면서 '거, 돈 허투루 쓰지 말고.' 하신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인 듯, 빠뜨리지 말고 쓰라는 뜻이다.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지만, 객지에 혼자 있는 큰딸이 안스럽고, 행여라도 마음이 상할까 그 말은 쓰라 하지 않았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언니가 자주 편지를 보냈었다. 편지의 첫머리에는 항상 '부모님 전상서' 라고 써어 있었다. '부모님께

서는 농사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편찮으시지는 않으신지요, 동생들도 모두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겠지요. 일일이 안부를 묻고 난 후, 부모님의 열려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까지는 항상 잊지 않고 썼다. 그리고 봄이면 어머니가 해주신 속 개떡이 맛있었다. 여름장마에 집 똥논의 논두렁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부엌아궁이에서 물은 나오지 않는지 걱정을 하였다. 가을에는 타작마당을 생각하고, 찬바람이 불면 눈이 내리기 전 곧 부모님의 탈신을 사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하고 끝 인사 앞에는 불효자를 용서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한자의 뜻을 알기 전까지 나는 부모님전상서란 여섯 글자는 성과 이름처럼 함께 붙여 쓰는 것으로 알았다. 자식이를 앞에는 불효자를 꼭 써야만 답이 다 맞는 시형지 같았다. 그렇게 쓴 편지를 보아온 탓인지 나중에 어머니께 편지를 쓸 때에도 의례 꼭 어머니 전상서 라고 썼다. '어머니께, 또는 보고 싶은 엄마 받아보세요.' 라고 써놓고 읽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였다. 왠지 부모님의 격을 낮추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부모님께서는 늘 그런 편지를 기다렸다. 이틀에 한번씩 집배원(당시는 우체부아저씨)이 지나갈 무렵이면, 뒷밭에서 콩밭을 매다가, 조 이삭을 자르다가도 몇 차례씩 뒤를 돌아다보았다. 우체부아저씨가 곧은길로 해서 곧장 뒷밭로 올라가지 않길 바랐다. 자신 거의 한들이 우리 집 쪽으로 꺾이면 일손을 놓고 잔걸음으로 달렸다. 흠손으로 대문틀새에 꽂혀있는 편지를 뜯어 읽으시며 마치 딸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뻐하셨다.

공부하러, 또 직장을 찾아 객지로 나갔던 자식들이 명절에 하나 둘 씩 들어올 때 함께 오지 못해도, 그래도 그 찾아뵙지 못해 송구하다고 적힌 부모님 전상서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저녁 내 아쉬움과 반가움을 반반씩 뒤섞여가며 몇 번씩 읽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전상서"를 올려 본지가 언제였는지? 전화가 생긴 뒤로 뜬뜬했다. 게다가 요즘은 전자우편(이메일) 때문에 더 더욱 편지 쓸 일이 없어져서 쓰던 길에 내쳐 부모님께도 올리던 글을 아예 잊고 말았다. 이제는 혼자되신 어머니. 눈 더 어두워주시기 전에 그리고, 보낼 곳이 없어 부치지 못한 글이 되기 전에 "어머니 전상서"를 올려보려한다. 말로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는 진솔한 마음도 글에는 담을 수 있지 않은가. 긴장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꺼내 읽고 또 읽어보시도록 말이다.

noeu40@hanmail.net

식물기르기 ⑤ - 진달래

봄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산과 들에 꽃망울을 터트리며 알려주는 진달래. 3월 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5월 중순이면 만개(滿開)한다. 진달래 꽃말은 신념, 청렴, 절제이다.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며 식용과 관상용이 있다. 꽃은 식용으로 술을 담아 마시기도 하며, 화전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달래꽃은 달래꽃인데 그보다 더 좋은 꽃이라고 해서 진을 붙인 것이 지금의 진달래꽃이다. 봄이 오는 3월 진달래가 개화하는 이때쯤 산행을

즐거 불만도 하다. 우리 포천도 가까운 가평, 명지산, 운악산 등지에 진홍빛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어 산행의 즐거움을 더 해 준다.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볼까 지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진달래 개량종인 '아잘레아'라 하여 분 식물이 나와 있다.

이제 봄이 아닌 겨울에도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아잘레아' 분 식물로 집안에서 봄 맛을 하면 어떨까!



정선교
주부농예가(사)가산지부장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러리디자인 강사

rnwl@msn.com